

中風七處穴에 關한 小考

이봉효^{1*}, 임성철¹, 이경민¹, 김재수¹, 정태영²

¹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²진단학교실, ²제한동의학술원

A review on the Seven Acupoints for Stroke

Bong-Hyo Lee¹, Sung-Chul Lim¹, Kyung-Min Lee¹, Jae-Su Kim¹, Tae-Young Jung²

¹Dept. of Acupuncture, Moxibustion, and Acupoint, ²Diagno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

²Je-Han Oriental Medical Academy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even Acupoints for Stroke and reveal the meaning of the composition of that.

Methods : 1. The authors reviewed several literatures and studies related with the Seven Acupoints for Stroke. 2. We investigated the composition of Seven Acupoints for Stroke and found the mechanism of the function and clinical usefulness of that.

Results and Conclusions : 1. Seven Acupoints for Stroke is composed of 7 acupoints, i.e. 1 acupoint of Governor Vessel, 2 acupoints of Yang Myoung meridian, and 4 acupoints of So Yang meridian construct that. 3. Seven Acupoints for Stroke can be used for many of central nervous disease related with stress.

Key words : Stroke, CVA, Infarction, Stress

1. 緒 論

한의학에서 중풍에 해당하는 뇌졸중은 세계적으로 3대 사망원인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¹⁾. 현대의학에서는 발생원인에 따라 뇌출혈, 뇌혈전증, 뇌색전증, 일과성뇌허혈, 지주막하출혈, 급성뇌부종, 동정맥기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의학은 偏身不遂, 卒倒, 人事不省, 口眼喎斜, 言語蹇澀 등에서 중풍에 해당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1,2)}.

중풍의 원인에 대해서 劉河間은 ‘心火暴

盛’說을, 李東垣은 ‘正氣自虛’說을, 朱丹溪는 ‘濕痰生熱’說을 각각 주장하였으며, 王安道는 ‘憂喜忿怒에 따른 傷氣’를 원인으로 지적함으로써 중풍병인학설에 일대 공헌을 하였고, 沈金鰲는 ‘肥人多中風’이라고 하여 肥人은 腠理가 치밀해서 鬱滯되기가 쉽고 이에 따라 氣血이 순행하기 어려우므로 중풍이 오게 된다고 하여 환자의 체형에 따른 발병빈도를 언급하였다²⁾.

百會, 曲鬢, 肩井, 曲池, 風市, 足三里, 懸鍾으로 구성된 ‘中風七處穴’은 『千金翼方』에서 처음 언급된 이래 中風 치료의 주요 처방으로 인식되어 침구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特定穴 중의 하나이다. 이후 『太平聖惠方』과 『鍼灸資生經』에서는 약

· 교신저자: 이봉효,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Tel. 053-770-2252,
E-mail : dlghdgy@freecchal.com

· 투고 : 2009/08/18 심사 : 2009/09/09 채택 : 2009/09/24

간의 변화를 보인 다른 처방을 언급하면서 현대에는 총 3 가지의 中風七處穴이 알려져 있다³⁾.

이러한 中風七處穴에 대해 이 등¹⁾이 뇌경색 환자에 대한 中風七處穴 刺鍼의 효과를 보고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처방 구성의 方意, 효능을 발휘하는 경락학적 작용 기전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中風七處穴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언급과 현대적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처방의 구성 및 효능과 관련된 경락학적 작용기전 등을 탐구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 資料 및 方法

1. 研究資料

中風七處穴이 언급된 서적 중에서 3 가지의 처방이 각각 처음으로 제시된 서적들(『千金翼方』, 『太平聖惠方』, 『鍼灸資生經』)을 조사하고 이를 인용한 후대의 서적은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자 제외하였으며; 『鍼灸資生經』 이후의 서적들에서는 세 가지 처방을 함께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서적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권(『鍼灸大成』, 『鍼灸集成』)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1) 문헌 자료

- ① 『鍼灸大辭典』⁴⁾
- ② 『鍼灸資生經』⁵⁾

③ 『鍼灸大成』⁶⁾

④ 『鍼灸集成』⁷⁾

2) 현대적 연구 결과

온라인 상에서 ‘中風七處穴’을 검색어로 경락경혈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 및 국내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고찰 논문을 제외한 실험연구 논문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여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 ① 中風七處穴 刺鍼이 腦血流에 미치는 영향¹⁾

2. 研究방법

- 1) 中風七處穴이 언급된 문헌 및 이에 대한各家의 注解, 이와 관련된 현대의 연구 결과를 조사하였다.
- 2)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中風七處穴의 처방 구성과 효능에 대해 그 원리 및 작용 기전을 탐구하였다.

III. 結 果

1. 中風七處穴의 構成

中風七處穴은 『千金翼方』에서 言語障礙, 半身不遂 등의 中風 증상이 있을 때 7 개의 穴位에 뜸을 시술한다고 언급한 이래 역대 의가들에 의해 중풍 치료의 주요 처방으로 인식되어 왔다¹⁾. 그 구성을 보면 通治方과 中腑, 中臟의 3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통치방은 百會(GV20), 耳前髮際, 肩井(GB21), 風市(GB31), 三里(ST36), 絕骨穴(GB39),

曲池(LI11)로 구성되며⁸⁾ 이 중 耳前髮際는 후에 曲鬢(GB7)으로 인식되었다. 中腑方은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로서 肩井이 肩髃(LI15)로 바뀌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中臟方은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로서 曲鬢, 風市, 絕骨이 風池(GB20), 大椎(GV14), 間使(PC5)로 바뀌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中風七處穴

百會	足三里	曲池	風池	大椎	間使	肩井	中臟
"	"	"	曲鬢	風市	絕骨	"	通治
"	"	"	"	"	"	肩髃	中腑

2. 中風七處穴에 대한 문헌상의 언급

1) 『千金翼方』³⁾

[해석]

“모든 치료의 요점은 쑥뜸이다. …… 뜸을 뜨는 방법은 먼저 百會에 뜨고, 그다음에 風池에 뜨고, 그다음에 大椎에 뜨고, 그다음에 肩井에 뜨고, 그다음에 曲池에 뜨고, 그다음에 間使에 뜨는데 각각 3壯씩 뜬다. 그다음에는 족삼리에 5壯 뜬다. 정신이 맑지 않을 때에는 이 穴들에 각각 3壯씩 떠야 한다. …… 그렇지 않고 이를 소홀히 여기면 진실로 朝夕이 지나 죽게 되니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2) 『太平聖惠方』⁴⁾

[원문]

“凡人 …… 或飲食不節, 酒色過度, 忽中此風, 言語蹇澁, 半身不遂, 于七處一齊下火, 灸

三壯. 如風在左灸右, 在右灸左. 一百會, 二耳前髮際, 三肩井穴, 四風市穴, 五三里穴, 六絕骨穴, 七曲池穴 …… 依法灸之, 無不獲愈.”

[해석]

“무릇 사람들이 ……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성욕을 과도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風에 맞으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 쪽 몸을 마음대로 못쓰게 되는데 7 군데에 일제히 뜸을 3 장씩 뜬다. 만약 중풍의 증상이 왼쪽에 나타나면 오른쪽에 뜸을 뜨고 중풍의 증상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왼쪽에 뜸을 뜬다. 첫째 百會, 둘째 귀 앞의 머리카락 가장자리, 셋째 肩井, 넷째 風市, 다섯째 三里, 여섯째 絕骨, 일곱째 曲池이다. …… 제시된 방법대로 뜸을 뜨면 반드시 증상이 호전된다.”

3) 『鍼灸資生經』⁵⁾

[원문]

“凡人 不信此法, 或飲食不節, 酒色過度, 忽中此風, 言語蹇澁, 半身不遂, 宜七處齊下火, 各三壯. 風在左灸右, 右灸左. 百會, 耳前髮際, 肩井, 風市, 三里, 絕骨穴, 曲池, 七穴神效. 不能具錄, 依法灸, 無不愈.”

[해석]

“무릇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음식을 절제하지 않거나, 성욕을 과도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風에 맞으면 말이 어눌해지고, 한 쪽 몸을 마음대로 못쓰게 되는데 7 군데에 일제히 뜸을 3 장씩 뜬다. 만약 중풍의 증상이 왼쪽에 나타나면 오른쪽에 뜸을 뜨고 중풍의 증상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왼

쪽에 땀을 뜬다. 百會, 귀 앞의 머리카락 가장자리, 肩井, 風市, 三里, 絶骨, 曲池 이렇게 7 개의 혈은 효능이 뛰어나며, 일일이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이니 제시된 방법대로 땀을 뜨면 낫지 않는 것이 없다.”

[원문]

“灸風中府, 手足不隨, 其狀覺手足或麻或痛, 良久乃已. 此將中府之候, 病左灸右, 病右灸左, ……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共十三穴.”

[해석]

“中風 중에서 中府에 땀을 뜨는 경우는 手足에 麻痺가 나타나는데 그 증상은 팔다리에 감각이 무뎠거나 통증이 생겨 오래 간다. 이것은 장차 中風이 腑에 적중할 전조 증상인데 病이 왼쪽에 나타나면 땀을 오른쪽에 뜨고 病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땀을 왼쪽에 뜬다. ……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모두 13 穴에 땀을 뜬다.”

[원문]

“灸風中藏, 氣塞涎上不語, 極危者, 下火立效, 其狀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麻, 此將中藏之候, 不問風與氣, 但依次自上及下, 各灸五壯, ……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共十二穴.”

[해석]

“中風 중에서 中藏에 땀을 뜨는 경우는 氣가 막히고 침을 흘리며 말이 어눌해진다. 매우 위험한 자는 땀을 뜨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그 증상은 마음속이 어지럽고, 생각이 끊이지 않으며 혹은 팔다리가 무뎠다. 이것은 장차 中風이 臟에 적중할 전조

증상인데 風이든 氣이든 따질 것 없이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각 5장씩 땀을 뜬다. ……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 모두 12 穴에 땀을 뜬다.”

4) 『鍼灸大成』⁶⁾

[원문]

“中風風邪入腑, 以致手足不遂 : 百會, 耳前髮際,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 凡覺手足麻痺, 或疼痛良久, 此風邪入腑之候, 宜灸此七穴. 病在左灸右, 在右灸左, 候風氣輕減爲度. 中風風邪入臟, 以致氣塞涎壅, 不語昏危 : 百會, 大椎, 風池, 肩井, 曲池, 足三里, 間使. 凡覺心中憤亂, 神思不怡, 或手足頑麻, 此風邪入臟之候, 速灸此七穴, 各五七壯.”

[해석]

“中風에서 風邪가 腑에 들어가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는 百會, 귀 앞의 머리카락 가장자리,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을 쓴다.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風邪가 腑로 들어간 증상이므로 이 7 개 穴에 땀을 떠야 한다. 증상이 왼쪽에 나타나면 땀을 오른쪽에 뜨고 증상이 오른쪽에 나타나면 땀을 왼쪽에 뜬다. 風氣가 輕減될 때까지 뜬다. 中風에서 風邪가 臟에 들어가서 氣가 막히고 침이 고이며 말을 잘 못하고 정신이 맑지 못할 때에는 百會, 大椎, 風池, 肩井, 曲池, 足三里, 間使를 쓴다. 마음속이 답답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거나 팔다리가 감각이 매우 둔해지는 것은 風邪가 臟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빨리 이 7 개 穴에 각 5 ~ 7 壯씩 땀을

뜬다.”

5) 『鍼灸集成』⁷⁾

[원문]

“凡覺手足或麻或痛良久乃已. 此將風中府之候. 宜灸百會曲鬢肩髑曲池風市三里絕骨. 凡覺心中憤亂神思不怡或手足麻痺. 此將風中藏之候. 宜灸百會風池大椎肩井曲池間使三里. 治風七穴百會耳前髮際肩井風市三里絕骨曲池一方加有風池合谷肩髑環跳凡九穴. 凡中風皆灸之.”

[해석]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통증이 오래가는 것은 風邪가 腑에 들어갈 징조이다. 百會, 曲鬢, 肩髑, 曲池, 風市, 足三里, 絶骨에 뜸을 떼야 한다. 마음속이 답답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것은 風邪가 臟에 들어가려는 것이다.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에 뜸을 떼야 한다. 治風七穴은 百會, 귀 앞의 머리카락 가장자리, 肩井, 風市, 足三里, 絶骨, 曲池인데, 風池, 合谷, 肩髑, 環跳를 더하기도 한다. 모두 9 개 穴인데, 中風에는 다 이것을 쓴다.”

3. 中風七處穴 構成 穴의 中風 관련 主治³⁾

- 1) 百會 : 頭風中風, 言語蹇澁, 口噤不開, 偏風, 半身不遂, 忘前失後, 風癩, 青風, 心風, 角弓反張, 言語不擇, 吐沫, 汗出而嘔, 腦重鼻塞
- 2) 大椎 : 嘔吐上氣, 乏力, 頸項強不得回顧,

風勞

- 3) 肩井 : 中風氣塞, 涎上不語, 頭項痛, 頸項不得回顧, 臂痛, 兩手不得向頭, 手足厥逆
- 4) 間使 : 卒狂, 胸中澹澹, 惡風寒, 嘔沫, 腋腫肘攣, 卒心痛, 中風氣塞, 涎上昏危, 瘖不得語, 咽中如梗, 小兒客忤
- 5) 足三里 : 卒心痛, 目不明, 不省人事
- 6) 曲鬢 : 引牙車不得開, 口噤不能言, 頸項不得回顧, 腦兩角痛爲顛風, 引目眇
- 7) 肩髑 : 中風手足不遂, 偏風, 風痲, 風痿, 風病, 半身不遂, 熱風肩中熱, 頭不可回顧, 肩臂痲痛, 臂無力, 手不能向頭, 攣急
- 8) 懸鍾 : 筋骨攣痛足不遂, 心中咳逆, 頸項強, 鼻衄, 腦疽, 大小便澁, 煩滿狂易, 中風手足不遂
- 9) 曲池 : 偏風半身不遂, 惡風邪氣, 挽弓不用, 泣出喜忘, 喉痺不能言, 挽弓不開, 屈伸難, 風痺, 肘細無力, 瘰癧癩疾, 舉體痛痒如蟲齒
- 10) 風池 : 目眩苦, 偏正頭痛, 頸項如拔, 痛不得回顧, 目淚出, 欠氣多, 鼻衄衄, 目內眇赤痛, 氣發耳塞, 目不明, 引經筋無力不收, 大風中風, 氣塞涎上不語, 昏危
- 11) 風市 : 中風腿膝無力, 渾身搔痒, 麻痺

4. 現代적 연구

1) 中風七處穴 刺鍼이 腦血流에 미치는 영향¹⁾

- ① 刺鍼 후 손상된 혈관에서 평균혈류속도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 ② 刺鍼 후 손상된 혈관에서 박동성지수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 ③ 刺鍼 후 손상된 혈관에서 수축기혈류속도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IV. 考 察

1. 中風七處穴에 대한 醫家들의 견해 분석

百會, 曲鬢, 肩井, 風市, 絕骨穴, 曲池, 足三里의 中風七處穴 처방 구성에 대해서는 의가들의 견해에 異見이 없이 모두가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는 前代 醫家의 견해에 대해 後代 醫家들이 異見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후대 의가들의 임상 경험 상 전대에 제시된 처방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前代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배껴쓰는 저술 관행에 기인할 수도 있다. 더욱이, 관련된 症狀이나 문장 서술이 변동 없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임상적 유효성보다는 저술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역대 의가들이 제시한 中風七處穴 처방은 크게 通治方 (百會, 曲鬢, 肩井, 風市, 三里, 絕骨穴, 曲池), 中腑의 처방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 中臟의 처방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里)이라는 3 가지로 나뉘어진다³⁾. 이 등¹⁾은 이것에 대해 中風七處穴이 나타나는 문헌과 증상에 따라 3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하였으나, 이것은 의가들이 中風을 通治, 中臟, 中腑로 세분하여 설명한 것을 이와 같이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通治方은 일반적으로 언어장애, 편측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고; 中腑方은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통증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우에 사용하며; 中臟은 氣가 막히거나 침을 흘리며 언어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마음속이 편하지 못하고 생각이 끊이지 않으며 팔다리가 마비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체로 비슷하나 中臟, 또는 中腑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에 부합되도록 처방을 구사하고자 한 것이 風池, 大椎, 間使 또는 肩髃의 加減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加減을 보면 通治方에 기준하여 中腑方은 肩髃 1 穴만 바꾸었으나, 中臟方은 3 穴을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風邪가 腑에 침범한 中腑에 비해 臟에 침범한 中臟의 경우가 더욱 重證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中風七處穴에 관한 현대적 연구 분석

이 등¹⁾은 Brain CT 상 중대뇌동맥경색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中風七處穴에 자침한 결과 손상된 혈관에서 심장박동과 혈류속도의 감소를 측정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것은 질병을 야기한 風邪를 억제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안정을 취하게 하고, 심장을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中風七處穴의 효능을 잘 반영하는 연구결과로 사료된다.

3. 經絡學的 考察

中風七處穴의 通治方을 소속된 經脈別로 살펴보면, 督脈에 속하는 穴이 1 개 (百會), 陽明經에 속하는 穴이 2 개 (曲池, 足三里), 少陽經에 속하는 穴이 4 개 (曲鬢, 肩井, 風市, 絕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방 구성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 中風이라는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이와 같은 처방을 구사함으로써 中風의 症狀을 輕減시키고 결과적으로 치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처방 구성으로부터 中風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유발 원인들 중에서 무엇이 보다 더 중요한 因子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7 개의 處方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4 개의 穴이 少陽經에 속하는 穴이라는 점은 中風을 일으키는 원인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마음의 忿怒 즉, stress에 따른 火의 폭발이라는 사실을 古人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바로 ‘憂喜忿怒가 氣를 傷하여 中風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王安道の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인체에서 少陽經은 여유로움, 이완을 나타내는데, 갈수록 빠른 속도와 많은 정보의 축적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收斂, 收縮, 조급함을 나타내는 厥陰經이 亢進되므로 厥陰-少陽 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인한 각종 난치병이 증가하게 된다⁹⁾. 中風의 호발연령이 낮아지는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급박한 변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이 계속된다면 中風七處穴의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少陽經에 이어 陽明經에 속하는 穴이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은 stress와 관련된 마음의 火 이외에도 무절제한 식생활이 두 번째로 위험한 발병인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더구나, 太陰-陽明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太陰經을 제외하고 陽明經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절제한 식생활이 營養不足보다는 過度한 섭취와 관계된다는 量적인 측면을 지적함과 동시에, 특히 濕邪에 해당하는 지방질(fat)을 선호하는 식습관에도 문제가 있다는 質적인 측면을 함께 지적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肥人多中風’을 역설한 沈金鰲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자는 中風이 주로 stress와 관련된 마음의 火, 그리고 무절제한 식생활에 기인한다는 中風七處穴에 내포된 병리적 의미를 제시함과 동시에,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중풍의 예방을 위해 무절제하며 서구화된 식생활을 탈피할 것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지나친 경쟁의식과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4. 臨床的 應用

빠르게 변화하며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요구받는 현대사회에서 中風의 호발연령이 낮아지고 stress와 관련된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厥陰-少陽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각종 난치병이 창궐하는 것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中風七處穴은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침구 처방 중의 하나로 서 고전에서 제시된 글자에 얽매어 단순히 中風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stress와 관계된 중추신경계 관련 질환에 대해 病名을 막론하고 六經의 관점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침구 임상에서 많은 효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된다.

V. 結 論

1. 中風七處穴은 百會, 曲鬢, 肩井, 風市, 絕骨穴, 曲池, 足三리의 7개 穴로 구성된 通治方과 이를 세분한 百會, 風池, 大椎, 肩井, 曲池, 間使, 足三리의 中臟 處方 및 百會, 曲鬢, 肩髃, 曲池, 風市, 足三里, 絕骨의 中腑 處方이 존재한다.
2. 中風七處穴을 소속 經脈別로 구분해 보면 督脈에 속하는 穴이 1 개 (百會), 陽明經에 속하는 穴이 2 개 (曲池, 足三里), 少陽經에 속하는 穴이 4 개 (曲鬢, 肩井, 風市, 絕骨)로 구성되어, 이로부터 中風의 주요 원인이 stress에 따른 火 및 무절제한 식생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中風七處穴은 厥陰-少陽의 불균형에 의해 야기되는 현대사회의 각종 중추신경 관련 난치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參考文獻

1. 이순호, 신경호, 김종욱. 中風七處穴 刺鍼이 腦血流에 미치는 영향. 대한침구학회지. 2004 ; 21(3) : 83-97.
2. 全國韓醫科大學心系內科學教室. 東醫心系內科學(下). 서울 : 書苑堂. 1995 : 89-91.
3. 康丞濬, 朴致相, 朴昌國. 中風七處穴에 대한 考察 -中風의 概念變化에 따른-. 제한동의학술원논문집. 1998 ; 3(1) : 383-401.
4. 程寶書 主編. 鍼灸大辭典 2版.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8 : 387.
5. 鍼灸資生經 影印本. 서울 : 一中社. 1991 : 第四 25-6.
6. 路加針灸研習中心王. 鍼灸大成校釋. 臺北 : 啓業書局有限公司. 1987 : 1127-8.
7. 李經緯, 孫學威 主編. 鍼灸集成. 北京 : 北京市中國書店. 1986 : 卷二 62-3.
8. 대한침구학회교재편찬위원회. 鍼灸學(上). 2版. 과주 : 集文堂. 2008 : 29, 64, 243, 288.
9. 이봉효, 이윤경, 이경민, 임성철, 정태영, 서정철, 양재하, 최성훈. 筋膜痛症候群과 十二經筋의 比較 考察 및 六經理論에 따른 解釋. 대한침구학회지. 2007 ; 24(5) : 33-41.